

기고

우리집 대피계획, 어린이 안전 지키는 가장 쉬운 준비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을 맞아 가정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집 대피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가족끼리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의 첫 단계는 집 안의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꽂아 두거나, 전기장판을 접어 사용하는 행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주방에서 불을 사용할 때 주변에 휴지나 수건 같은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대피 경로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에서 거실, 현관, 계단을 거쳐 밖으로 나가는 기본 경로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관 쪽에 불이나 연기가 심해 나갈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베란다나 안방기 등 두 번째 탈출 방법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가족 역할 분담도 안전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119 신고를 맡고, 다른 사람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돕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한 후에는 모일 장소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수다. 아파트 놀이터, 단지 정문, 학교 운동장 등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집합장소가 정해져 있을 경우,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피계획은 한 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동해 보면 어두운 곳, 장애물, 위험요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대피계획을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수칙이다. 10분만 투자해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각 가정의 스스로의 대피계획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연웅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번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별로 크지 않은 지구지만 곳곳에서 전쟁, 화산폭발, 지진, 환경공해 등으로 지구 표면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거기에다 인간의 무한한 탐욕은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더더욱 지구를 망가뜨려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사막화해가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찮은 일에도 투쟁적이 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끼리도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는 경우가 상당하다. 끈끈했던 애정이 피차간에 다갈갈 수 없는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도저히 종잡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세상인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부터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격려와 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린이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어떻게 어린이가 완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금만 잘못해도 나무란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을 꼭 꼭 꼬집어서, 모든 것을 어른의 견지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 자신도 안봐줄지 못하면서, 때문에 잘못을 했더라도 가능한 격려의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격려는 용기와 희망, 새로운 정기를 갖게 함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인생의 초기경험에서 격려보다 벌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다수의 현실이다. 때문에 진취적이지 못

하다. 매사에 주도적이지보다는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무슨 창조적인 삶이 이뤄지겠는가. 이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를 침잠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자성예언'이라는 것이 있다. 때문에 자꾸 잘못된 지적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잘못만 저지르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결국 그것이 낙인이 되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내재되어 있는 자동조종장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거꾸로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어쩌면 이번의 실수가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다음에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격려해 준다면 어떨까.

아마도 다음에는 실수보다는 제대로 된 완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격려가 있는 지지적 환경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한다. 이는 곧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럼으로써 높은 자존감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지만 거꾸로 기를 죽이는 위협적인 환경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곧 낙담과 두려움만 안겨 줄 것이다. 결국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것이고,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격려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낙담의 악순환구조는 인간 개개인은 물론 그 집단과 국가사회까지 좁혀 버리기 때문이다. 격려와 지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보배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면 어떨까. 멋진 사회로 가는 가교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배터리는 고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전 중 발열, 외부 충격, 불량 제품 사용은 배터리 폭발 및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충·방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일정 온도를 넘어설 경우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배터리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비정품 충전기 사용, 차량 내 장시간 방치, 충전 중 외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은 명확하다. ▲정품 충전기 사용 ▲배터리 과열 시 즉시 충전 중단 ▲낙하·압력에 의한 손상 주의 ▲고온 환경에서 보관 금지 ▲취침·외출 시 충전 지양 ▲폐기 시 지정된 수거함 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리튬이온배터리 역시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면 안전한 도구이지만, 방심하면 위험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은원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음력 10월 2일)

Grid of zodiac signs and horoscope text for variou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the Expressway.